ESCO자금, 변화의 바람이 불다

ESCO 민간금융지원 확대

정리 / 편집부 도움말 / 산은캐피탈, 국민은행,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신한은행

에너지 절약은 이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넘어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 등과 맞물려 한 국가 사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당초 총 5298억원으로 6월중순까지 ESCO투자사업 2021억원,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1239억원,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1382억원 등 총 4643억원이 접수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6월 현재 총 예산대비 약 88%의 자금이 접수·추천되었으며, 이후에도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7월 이후부터 사업별 또는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잔여예산을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ESCO 업체들은 턱 없이 부족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기업은 스스로 ESCO 사업을 적용, 확대하는 전략을 짜야하고 이에 발맞추어 기관은 정책자금의 확대 필요성을 국내 산업의 에너지 절약 중요성과 해외의 선진 사례를 통해 공론을 조성할 때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ESCO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ESCO 민간금융을 확대하는 원활한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해외 ESCO 파이낸싱의 사례와 국내 민간융자자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의 ESCO 파이낸싱 사례

중국

중국의 ESCO사업은 기본적으로 세계은행과 국제환경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중국의 에너지절약기업협회인 EMCA(Energy Managemant Company Association)와 일부 위임을 받은 은행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ESCO사업자가 중국투자보증공사의 보증을 얻어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EMCA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중국에서의 ESCO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은 은행에서의 소요자금 차입,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세계은행/국제환경기금 자금의 지원을 받는 세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들 재원조달 방법에는 아직 몇가지 장애요인을 갖고있다. 첫째 은행대출의 제약, 둘째 외국자본의 주식시장에 대한 제약, 셋째 중국의 세금정책,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비대칭적인 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금융구조는 아직 선진국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이를 통한 자금조달이 그리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

미국 ESCO의 프로젝트 자금조달(Financing)방법은 차입(debt), 리스(lease), 지방리스 및 지방채, ESCO 자금조달(financing), 유틸리티 수요관리(DSM) 계약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ESCO 프로젝트는 고객이 은행이나 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다. 미국의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텍사스 주정부의 후원으로 1989년부터 시작된 미국 최대의 건물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로써 Texas A&M의 Energy Systems Laboratory (ESL)에서 주관하여 수행하는 The Texas LoanStar 프로그램이 있으며 공립학교들과 다른 정부시설들에 에너지 효율기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1991년 이래로 주 정부 시설 내 에너지 효율기기 프로젝트에 1억 7천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왔다. 또한 주정부 채권과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기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복합적인 자금이 주정부 시설 내 36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영국

영국 ESCO 시장의 경우, 상당규모의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ESCO(주로 정유회사나 전력회사의 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ESCO는 은행을 통한 TPF(Third Party Financing)를 이용한다. 영국의 은행 및 금융기관은 ESCO사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주로 사용되는 파이낸싱 방법은 미공개 제3자 파이낸싱(undisclosed TPF)으로, 이것은 고객에게 자금원을 밝히지 않고, ESCO가 파이낸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진다.

프랑스

프랑스의 EPC방식은 설계, 시공, 유지 및 금융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패키지 거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를 재기금화하는 경제적 모형이고 ESCO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리스크를 책임지는 것을 전제하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보증 계약을 말한다. 한편 새로운 에너지효율정책, 에너지시장 자유화로 인해서 EPC의 새로운 유형이 필요시 되었고 에너지공급사는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 에너지와 다중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공공·민간 협력모형(PPP)이 ESCO의 사업유형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민간 협력모형(PPP)은 공공건물에서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고 제안된 방식이다.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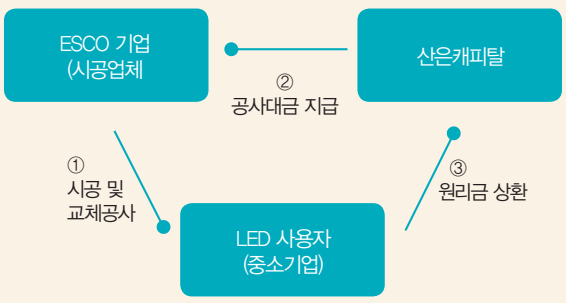
스페인에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에이전시인 에너지절약 및 다변화연구소(IDAE)와 함께 거의 모든 지방정부의 에너지 에이전시가 ESCO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프로젝트에 제3자 파이낸싱(TPF)을 제공하고 있다. 제3자 파이낸싱(TPF)은 IDAE뿐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정부의 에너지 에이전시에 의해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IDAE는 TPF를 많은 수력 프로젝트에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에이전시에 의한 직접 파이낸싱이 스페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TPF를 통해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수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스페인에서 ESCO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에너지 에이전시들이 직접 프로젝트 수행이나 자금조달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국내 ESCO 민간 융자 자금 사례

KDB 산은캐피탈

1972년 한국산업리스로 시작된 KDB산은캐피탈은 산은금융지주그룹을 대주주로 하는 신용평가기관 A+등급을 받고 있다. 에너지 관련 기업 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대출 및 팩토링 관련해서는 정책자금(에스코팩토링)을 2.75% 고정금리(7년 이내)로 제공하고, 신재생(태양광 등) 사업 프로젝트 등, LED 팩토링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자금(6년 이내)으로 5.69%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기업대출 부분에서 KDB는 신속심사제도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과 업무 진행을 통해 필요자금을 적시에 지원 가능하고 부동산 담보뿐만 아니라 매출 채권 등의 다양한 담보 개발로 담보 부족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추천 금액 외 추가 비추천자금 지원 및 신용등급, 담보제한 등으로 은행거래가 어려운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KDB산은캐피탈 중소기업 LED 조명 보급 정책자금〉



ESCO 기업인 시공업체와 LED사용자(중소기업) 간의 시공계약 및 교체공사가 이뤄지면 산은캐피탈은 ESCO기업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LED사용자는 산은캐피탈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지원이 이뤄진다. LED교체 시 초기투자비용 부담 없이 매달(최장 72개월) 전기요금 등 절약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기업체 공장 내 LED조명(설치공사대금: 1억 이상) 교체의 경우 해당되며 서울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서가 담보를 해준다. 단 서울보증보험은 시공사가 ESCO기업인 경우에 한해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녹색성장산업인 ESCO (Energy Service Company)기업 및 에너지사용자를 위한 상품인 'KB Green ESCO기업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5,000억원 규모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기업 및 동 시설을 도입하는 에너지사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계약방식에 의한 (新)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인 대·중소기업과 성과보증방식에 의한 성과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소요자금의 90%이며, 담보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인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의 성과배분계약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이다. '에너지절감액'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시설을 도입하여 절약되는 에너지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대출금의 상환자원이 된다. 즉, ESCO와 에너지 사용자는 초기시설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에너지절감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자금 부담 없이 설비를 도입할 수 있고,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게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0.5%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우대해 줌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채권보전 측면에서도 일반시설자금대출과 달리 신용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진입장벽을 낮췄다. 'KB Green ESCO기업대출'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ESCO투자사업이 국내에서도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며, ESCO기업에 대한 정책자금대출 수혜대상 외 사업도 지원이 가능하여 ESCO투자사업 및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시설 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중소 에너지사용자의 원활한 시설도입을 위해 보증기관과도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에너지절약시설 사용자를 위한 KB Green EDCO 기업대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었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효율 에너지사용시설로 보완 또는 교체하는 경우 투자비용 지원 상품으로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신)성과배분방식 또는 성과보증방식에 의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본 대출로 조달하고, 향후 에너지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노후화된 시설을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교체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상기업은 성과배분계약 또는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 이며, 대출과목은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자동대출 등 한도거래 제외)과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이 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 5년 이내 분할상환(대출기간의 1/3 범위내 거치가능)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 10년 이내 분할상환(대출기간의 1/3범위내 거치가능)

※ 분할상환기간은 성과배분계약기간 이내로 제한

대출금리

– 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 금리우대: 0.5%범위내, 단, 당행 내규에서 정한 금리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대출한도

–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 소요자금의 90%

–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 소요자금의 90%

채권보전

– (신)성과배분방식에 의한 에너지절감액(매출채권)은 반드시 담보제공

– 당해 시설 또는 (특별출연협약보증부)신용보증서 등 담보제공 가능. 단,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신용으로도 취급 가능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기초하여 에너지절약사업과 관련 보증상품(ESCO보증)을 2011년 12월 19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ESCO보증종류

종 류	수수료율(연)	종 류	수수료율(연)
ESCO입찰보증	무료	ESCO하자보증	0.2
ESCO계약보증	0.13	ESCO선금급보증	0.27

융자

조합에 100좌 이상 출자 시 출자금 범위 내에서 연3%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449,190원/1좌)

ESCO보증한도

구 분	ESCO 입찰·계약·하자보증	ESCO 선금급보증
보증한도	출자금액 × 40배	출자금액 × 20배

출자 시 투자수익

지급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좌당금액	374,885	403,450	427,366	449,190
현금배당액	15,000	15,000	10,000	5,000
증가율	11.8%	11.6%	8.4%	6.3%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에너지 사용자와 에너지 시공자용으로 분리돼 있는 '신한 그린 에너지 팩토링' 상품이 있다. LED교체로 사용자에게는 전기료를 절약해주고 시공업체에겐 공사부채를 사전에 막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상품은 아파트, 공공기관 LED 교체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은행에서 먼저 지원하고 공사 완료 후 에너지 사용자(아파트, 공공기관)는 전기료 절감액으로 은행에서 지원한 공사비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에너지 절약 공사에 대해 철저한 사업성 검증이 뒤따르며 공사 완료 후 계약한 에너지 절감액이 8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에너지 사용자는 추가 비용 없이 에너지 절감액으로 최장 4년(1억 미만 아파트 LED공사는 최장 5년 이내) 이내에서 공사비 상환 가능하다. 시공업체는 공사대금을 즉시 회수 가능하며 시공업체 부채로 포함되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다.

LED공사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를 매입한도로 지원하고 공사도급금액 1억원 이상 (아파트 LED공사는 1천만원 이상), 최장 4년(1억 미만 아파트 LED공사는 최장 5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다.

하반기(7월 이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 안내

7월 접수일정 : 7월2일~7월6일(5일간)

- 사업별 구분없이 잔여예산의 60%(435억원)를 중소기업에 우선지원, 대기업에 40%(291억원) 지원예정
  -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신청대상 금액의 60%는 정책자금, 40%는 민간자금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8월 접수일정 : 8월 1일 ~ 예산소진시까지

-7월 접수 이후 발생된 잔여예산에 대하여 사업별, 기업별 구분없이 지원

201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접수 가능액 : 726억원 (6월 말 기준)